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4월 17일 (제114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오해하지 마라

성도들이, 제자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생각이 깊다. '자식은 자식 이구나, 제자는 제자구나.' 생각한다. 누가 부모 마음을 알고, 누가 스승의 마음을 다 알까. 잘 되라는 부모의 당부들 잔소리로, 참견으로 오해하는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스승의 징계를 저주로 받는 제자들...

나는 38년을 한결같이 '예수님이라면 어찌 하셨을까' 생각하며 묵회했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어찌하면 저들을 성장시킬까, 어찌하면 저들을 잘 되는 길로 인도할까 부심하고 고뇌하며 기도했다.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는 법, 그런데 저들은 이미 오해라는 틀에 갇혀 있으니 나의 진실과 진실이 통할 리 있겠나.

오해(誤解), 잘못 풀었다는 것이다. 오해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생긴다. 오해는 독버섯과 같다. 독버섯은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아름답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 오해는 더 타당해보이고, 그럴싸하다. 그러나 오해는 서로 원수 되게 하고, 결국 죽게 한다. 성경이 이를 증명한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 대해 사울이 오해한다. '저런 인기라면 곧 내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겠는데?' 했다. 다윗은 변한 게 없는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결국 오해라는 독버섯을 먹은 사울이 죽었다.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를 오해한 사건도 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놓고 전쟁하려할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미가야는 반대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고 오해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간다. 그러나 오해라는 독버섯은 아합을 죽였다.

가롯 유다는 예수로 인해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줄 알았다. 오해였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안 그는 예수님을 은 삼십 냥에 팔았고, 결국 오해의 독버섯으로 인해 그는 죽고 말았다. 가롯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부활절이다. 믿음이 부활해야 한다. 믿음이 부활하면 모든 오해는 사라진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2년이 훌쩍 넘도록 전 지구촌을 몸살 나게 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서서히 계절 독감처럼 풍토병화(엔데믹)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뉴욕타임즈나 CNN, BBC 등 외신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다루게 될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고, 성인 70%가 넘는 국민들이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며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면 그곳에도 들어가 교회 재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는 슬라바 목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복음 전하기 좋은 황금어장이니 우크라이나 목사들에게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하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 아마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문선교사도 어서 오라고 아우성입니다. 남미 이현숙 선교사도 틈만 나면 연락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는 보습을 보니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없는 시간 중에도 나는 매주 신학교 수업에 들어가 목회성장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성공자로 만들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성공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에게 배운 제자나 성도들 중에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서 성공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에 자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배운 대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면 명령하세요. 귀신 쫓으려면 쫓으세요. 문제를 보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시청광장에 모여 기도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이다. 이제 곧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미 포스트 코로나 계획을 발표하셨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5월부터라도 산상집회를 열고, 이어서 전국의 전도집회 및 시청광장에서 진행했던 기도성회도 재개하실 것을 천명하셨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리두기만 해제되면 바로 기도원 산상집회를 열 것입니다. 제주도부터 전국 지교회들을 순회하며 생중계로 주일에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 들어가 전도집회를 해야 합니다. 시청광장에서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억눌렸던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신학교는 영어, 중국어 온라인 수업도 열어서 그룹별로 프리토킹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학생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해서 통과 못하면 졸업 안 시킵니다. 해외로 선교하러 나갔던 제자들이운데 현지어가 안 되는 자들은 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어교육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먼저 하고 중국어는 내년에 하자는 소리에 나중에 하자는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영어, 중국어 매일 하라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그룹별로 프리토킹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학생처장으로부터 받아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나의 기쁨은 더욱 배가되는 겁니다. 신학교를 열고 학생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공부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제 장로장립도 하고 각 직분자 임명식도 진행할 것입니다. 공예배를 꼭 지켜주세요. 공예배도 빠지면서 무슨 장로가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라도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나 딱 한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요,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길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6)

왜 너희는 복 받기를 싫어하느냐?

“복이 싫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이러면 손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이라며, 그런 말하는 목사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느니, 신비주의가 잘못됐느니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뭐니까? 목적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아홉은 고침을 받아 바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것이 기복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한 명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 원한다

우리가 복을 얻고자 함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복을 원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너나 잘 살아라’ 그렇습니다. 병들어 골골 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보세요. ‘웃기고 있네, 너나 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잘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으로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이타주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福音)은 복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고, 병든 자에게 복음은 병을 고침 받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고,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 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은 예수로 인하여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잘 살면 다냐?’ 그러는 사람들, 그럼 못 살아야 정상입니까? ‘교회가 크면 다냐?’ 그러는데, 그럼 교회가 작아야 정상입니까? 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체휼하셨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지난 수요일에 설교입니

다. 그런데 사업에 성공한 장로들이 저에게 이 설교를 다시 보여 달라고 강청하며 “목사님, 우리 성도들도 저처럼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되고 성공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신처럼만 될 수 있다면 믿지요’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잘돼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하는 목적도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오래 전에 미국에 사는 지인이 30만 평 대지에 산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뻔인 줄 알았습니다. 뻔도 너무 세다 생각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올림피아공원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다. 집까지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갔고, 그 안에 사냥터도, 낚시터도 다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미국의 하나님은 누구고 한국의 하나님은 누구냐?’ 저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집회 차 미국에 갔을 때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대접을 했기에 안면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교회에 계시지 않았습다. 교회 측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 관념대로 기도원이나 아니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말이 바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뭘? 기도를 하러 바다로 갔다고?’ 생소해서 물었지요, “바다에서 기도하다니요?” 그랬더니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쇼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

과를 낳은 겁니다. 믿는 자가 잘 살면 죄처럼 여기는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복도 하나님께로 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히6:14).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

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12:2). 이 말씀은 복을 준다는 개념이

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체가 복이다’, ‘네가 복덩어리다’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복덩어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128:1). 시편 1편에도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손대는 것마다 복, 심지어 내가 기르는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 자체가 복이라 그런 겁니다.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지요? 요셉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땅히 복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은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는 것일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의 근원이 된다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는 전제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할 때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28:1), 전제조건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등등 전제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덩어리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그렇고, 세계를 복음화한 것도 그렇고, 또한 세계 어디를 가도 돕는 자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지식도, 형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이 저를 예수님 섬기듯 하는 것을 보면 저 자신도 놀랄 지경입니다. 왜 제가 그런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제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더러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떠나면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와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들요.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번성했지만 떠나더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곁을 떠나도 그리하건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승승장구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니 결국 본인은 물론 비참한 가족사를 남기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 살고 병든 것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고생해도 너만은 고생하지 말라는 것이 부모 마음일진대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서 꾸러 다니고 병들어 골골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마7:9~11)?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준행하면, 곧 하나님 편에 서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세요. 복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나침반

목사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매번 느끼는 점은 '정말 개인의 삶은 없으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당신 본인 스스로도 "공인(公人)은 공적으로 살다가 공적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말 삶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 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의 시간이라면 기도하는 시간(?) 정도가 될듯합니다. 잠도 서너 시간 이상은 청하지 않는 분이고, 나머지 시간, 누군가를 대면하는 시간은 대부분 상담이거나 사적 만남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목사님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기때문에 상대방을 살리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참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수행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 '나의 먹는 양식은 너희들과 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어통역관 임무수행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그 과중한 업무에도 건강하신 비결은 아주 소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끌어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길가에 핀 꽃, 우연히 앤틱 가게에서 발견한 그림, 오랜 건축물 등, 대부분 일상처럼 스쳐 보내는 작은 것들에서 목사님은 남들과 달리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삶의 에너지를 끌어내십니다. 피곤이 다 풀린다고 하시죠. 목사님이 그 힘든 순간에도 일일이 물려온 성도들을 다 안수기도해주시고, 지극히 작은 상담조차도 일일이 문자로 답변

하시거나 전화를 거시는 이유가 물론 예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로 여기시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병에서 고침 받고 변화하며 새로워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행복해 하는 모습에서 더 큰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볼 때 나침반을 떠올립니다. 나침반의 방향점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북극(N)을 가리키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몸을 흔들니다. 파르르 떨며 계속해서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침반에서 '내가 길ियो,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온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목회 38년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맡긴 양떼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말입니다. 타인의 기쁨을 나의 더 큰 기쁨으로 치환해내는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죽한 삶의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침반이 북극점을 가리키는 자신의 몫에 충실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삶 말입니다.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걸림돌을 디딤돌로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돌을 걸림돌로 볼 것인가, 디딤돌로 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진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위기란 전환점으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 위기로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시간을 악용하여 믿음이 퇴보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시간을 선용하여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 팔리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갈 수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가 없었더라면 감옥에 갈 수 없었을 것이고, 술 맡는 관원을 만날 수 없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로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총리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을 도와줄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상처는 축복이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때문에 상처도 치유도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다. 관계의 중심에는 말이 있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고 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세상이란 학교에 등록해서 다양한 과목을 배운다.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지만 못하는 과목도 있다. 필수 과목도 있지만 선택과목도 있듯이. 모든 수업에서 과제는 필수이다. 과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과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과제를 축제로 바라볼 수 있다면, 과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이다.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구원 받은 자의 특권이요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축제에 초대 받은 사람들이다. 예배가 의무가 되면 예식이 된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면 종교생활이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오늘의 메시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간혹 성도들에게 "콩 심으면 뭐가 나지요?" 하고 물으면 심종팔구는 "콩이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아니요, 그건 결과론이고, 콩 심으면 절대 콩 나지 않고 썩이 납니다. 그 후에 아이요, 결실케 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눅 8:15).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면 인내를 통한 과정에 충실하라. 자기 일에 근심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다(잠22:29). 성공을 원하는 자들이 그 성공에는 인고의 과정이 있음을 간과한다. 우물에서 승능 찾는 격이다.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고 목사님은 늘 강조하신다. 즉 이 말은 인내의 과정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말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약1:4). 성경은 믿음의 선전들이 인내로써 끝까지 과정을 지

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고 기록한다.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마테 또한 인내로써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마24:13).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조바심으로 일관했기에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황량한 광야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하고 불평하며 조급할 뿐이었다(출14:11).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광야 40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이루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인내로써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히 3:14).

김상욱 목사



:: 낮은 울타리 ::

나의 주 무리는 어디인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 강아지가 달릴 때 네발로 뛰는 것이 아닌 토끼처럼 경충경충 뛰는 영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토끼 무리와 함께 자라다 보니 토끼에 영향을 받아 토끼처럼 뛰게 된 것입니다. 또, 그다음 영상에는 양이 나왔습니다. 강아지 무리에서 함께 자란 양은 강아지처럼 네발로 힘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와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속해있는 무리가 다르다보니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들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어쩔 수 없이 동물과 사람 모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주 무리'에 영향을 받고 그 무리를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학교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동아리에 들어가 주중 저녁 시간을 학교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세상 무리에 속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저의 주 무리가 바뀌니 이제 예수님이 아닌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후 꼭 주중 기도모임과 예배를 사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저를 미련하게 볼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주로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십니까? 나의 주(主) 무리는 어디입니까? 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토끼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 개의 본성을 잃고 토끼처럼 경충경충 뛰어다니게 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믿음과 신앙이 아무리 굳건하여도 내가 세상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크리스천의 본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모임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다가도 그 예배로 저희는 크리스천의 본성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과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 나의 주 무리를 예수로 삼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중심교인이 됩시다!

장수정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올림 있는 삶 ::

매일이 부활절

올해 저는 공부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놀고 싶고 낮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노트북을 켜고 강의를 듣습니다. 매주 내주는 과제를 꾸역꾸역하고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서 모든 게 버겁지만 일단 1년만 해보자고 생각하며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고 회사 업무도 해야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내가 어디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지, 충동적으로 구매한 건 무엇인지, 이번 달엔 얼마를 쓰고 모았는지, 다음 달엔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점검하고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처럼 시간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가계부를 써보는 거지요. 하루를 30분으로 쪼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샤워,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외출 준비, 8시부터 9시까지 이동,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업무,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직장 동료와의 커피 타임 등등, 30분 단위로 일상을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는지, 어디에 시간을 낭비했는지 한눈에 보입니

다. 카드 내역서처럼요.

시간가계부라는 걸 알고 나서 저도 한 달 정도 기록해보았는데, 잘 쓴 시간과 아까운 시간이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스트레칭하면서 쓰는 1시간은 저의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면 저녁을 먹고 나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유튜브를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씩 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멍 때리기만 2시간 할 때도 많고요. 아까운 시간이지요.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어찌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는 게 이번 달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마음처럼 쉽 지 않습니다. 어제도 못 지켰고요.

요즘은 작심삼일도 아닌 작심하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공부가 즐거워서 계획대로 실행하고, 하루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빈둥빈둥 보냅니다.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원래 세운 계획은 강의를 복습하고, 필기를 정리하고, 독서도 하려고 했는데 누워서 친구와 카톡만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든 다음 날에는 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어제를 아깝게 버

린 것 같아서 찝찝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니고 새날이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날이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하나씩 목표를 이루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하루 한보 전진했다가 다음날 반보 퇴보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망쳤더라도 오늘은 제대로 해볼 수 있지요.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 다시 살아난 날,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과 아침을 주셔서 다시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나요? 오늘 하면 됩니다. 어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읽지 못했나요? 오늘 읽으면 되지요. 어제 용서하지 못했나요? 오늘 용서하면 됩니다. 어제 말의 실수가 있었나요? 오늘은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은 새 날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말투, 예쁜 말씨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했던 나는 책 속에서 언어처럼 바른말, 고운말을 쓰고 싶었으나 현실세계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비속어가 섞인 사투리 일색이었다. 지성인들이 많다는 서울에 상경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칠고 험한 말로 상대를 다그치거나 무시하는 건 다반사이고, 잘난 척 훈수와 걱정을 가장한 설교, 끼어들어 구구절절 본인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 선을 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로 인해 나만의 정신세계에 빠져 공허함을 느끼다가 딸이 태어나자마자 존대어를 써주며 품위와 교양, 예절, 대화법 등을 교육시켰다. 지금은 천진함과 조숙함으로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눈을 마주치며 함박웃음을 머금고 예쁘고 고운말로 행복감을 표현한다. 나 또한 자애롭고 부드러운 말씨로 맞장구를 치거나 진심어린 공감을 표한다.

어제는 한가한 오후, 딸은 엄마를 붙들고 조곤조곤 리액션까지 하며 교회 얘기를 멈출 줄 모르고 했다. 두 테이블에 7명의 손님이 식사 중이었는데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화 과정을 공유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인다. 고개만 끄덕여도 상대는 통했다고 믿는다.

겉으로는 경청하는 듯 보여도 대부분 자신이 뒤이어 말할 내용에 골몰하며 발언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까지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실수를 범한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나에게 예쁜 말을 걸며 학습과 연습을 통해 호감 가는 말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목사님은 '남이 말하는데 앞지르지 않기, 남의 말을 자르지 않기,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기'를 대화의 3대 원칙이라 말씀하셨다. 말을 하는데 예절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인격의 척도가 된다.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희선이 제일 많이 수고했어." 모녀의 예쁜 말씨에 행복하다.

추성숙 집사

JC ACADEMY (유튜브로 생방송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천국에서 걸려온 전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옆집 권사님을 통해 어머니와 저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 없는 집안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어머니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전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모든 제사 도구와 위패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장성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참석하기도 했지만, 시골에서 외할머니 홀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 친척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외할머니께서 다시 제사 도구를 마련하려다가 넘어져 고생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불신앙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믿음이 바로 설 때까지만이라도 모시려고 했지만, 농사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외할머니는 끝내 시골에 머물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힘이 쇠약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연세가 되셨습니다. 그 시기에 모든 자녀가 각자의 사정으로 외할머니를 모시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였지만, 어머니

께서 외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6남매 중 막내였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모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할머니의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찬송가 하나쯤은 부를 수 있어야겠다고 하시면서 벽에 큰 글씨로 찬송가 가사를 붙여놓고 부르곤 하셨습니다. 침대 옆에는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외출하셔서 혼자 계시실 때는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녹음을 틀어놓고, 일생 중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무시는 가운데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섬김, 외할머니의 생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가문에서 처음 장례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머니와 함께 시골 외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외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좋은 곳에 계시지." 곧 외할머니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잔치가 열릴 듯 즐거운 분위기 속에 외할머니는 지

금껏 본 적 없는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고맙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곧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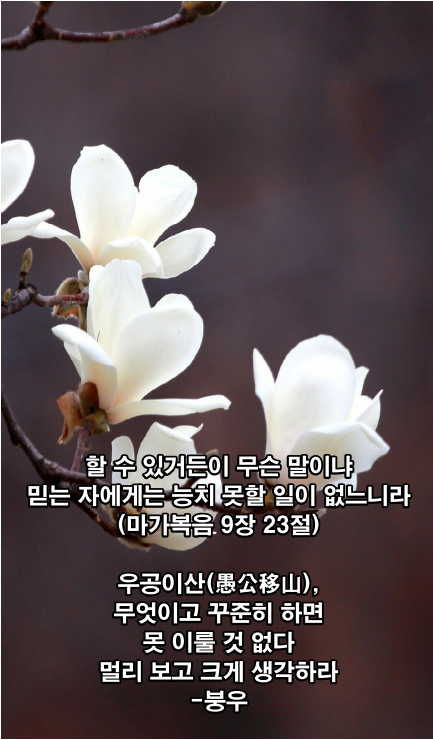
어린 시절, 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명절은 그들 앞에서 어머니가 핍박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문에 정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저 부러울 뿐,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척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니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뿌렸던 복음의 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테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정명관
v-777@naver.com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우공이산(愚公移山),
무엇이고 꾸준히 하면
못 이룰 것 없다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라
-봉우